

“핑음뒤 암흑과 비명... 지옥이 따로 없었다”

광복 70주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4> 日 원폭 피해자 강진 이화석 응

“업고 있는 아이가 죽는지도 모른 채 피난가는 여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 턱 밑 높이까지 쌓여있는 시체들...”

한국인 피폭자인 이화석(92·광주시 서구 염주동) 응은 “암흑으로 변했던 ‘그날’ 일본 히로시마의 참상은 한시도 잊을 수 없다”고 11일 말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경, 21살이었던 이 응은 일본 히로시마 해상(海上)부대에서 어느 때처럼 군수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고 6~7분 뒤에 ‘굉’ 하는 굉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초도 되지 않아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암흑에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불에 덴 것처럼 화끈거렸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1분여가 지나 먼지가 걷힌 뒤 일본인 군인을 따라 들어간 방공호에서 비로소 떨어진 폭탄이 원자폭탄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는 “호박처럼 생긴 거대한 구를 같았다”며 방공호에서 내다본 하늘을 묘사했다. 다행히 이 응이 복부만 부대는 폭심지에서 5km 떨어져 있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강진군 대구면 구수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서양발치던 지난 1945년 1월 4일 처자식을 뒤로하고 강제징병 됐다. 마을의 어업협동조합(옛 수협)에 반듯한 직장을 뒀던 그의 행복한 신혼 살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누나가 있는 해남 화원에 갔다 오니 집에 영장이 나와 있었다”고 회상했다. 영장이 나온 그날 이 응을 포함해 대구면에서만 5명이 징병 됐다. 어머니는 “독자는 징병 안 간다면서 뭇 날벼락”이라며 통곡했다. 그리고는 외동딸들이 군대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두툼한 양말을 만들어 쥐어줬다. 이 응이 배치된 곳은 일본 히로시마 가이다이시의 야노마치에 있는 군부대였다. 일본에서 군 복무는 말이 군인이었지 ‘경제용’과 다를 바 없었다. 만주 등지에서 오 는 군수품과 생필품, 식량을 탄광이 있는 산으로 운반하는 일을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12시간 이상 해야했다. 밤에는 석탄이 섞여있었지만 배고픔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동에서 만난 원폭 피해자 이화석(92) 응이 지난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로 인해 폐허로 변한 일본 히로시마의 처참했던 현장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945년 둘 아들 두고 같은 면 5명과 강제 징병 히로시마 군부대에서 매일 12시간씩 군수품 운반 피폭 후 시체처리 도맡아... 日, 진정성 있는 보상을

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먹였다. 배가 고파 전투식량용 공을 몰래 양말에 넣어 가져간 것이 일본인 분대장에게 걸려 몽둥이로 모질게 맞은 적도 있었다. 이 응은 그 순간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분대장)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이 보고 싶었기에 약목 같은 나날을 겨우 버틸 수 있었다.

피폭 직후 얼마지 않아 히로시마 시내로 들어가보니 중심부 건물은 앙상한 골조만 남아 있었고 도시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처음 목격한 광경은 은행 앞길에 턱 높이만큼 쌓인 시신들이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업고 있는 갓난아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정신을 놓은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군인들은 모자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머리가 모두 타버려 귀신같은 형상으로 거리를 오고갔다. 이 응은 일본을 떠나기 전 한 달 가량 시신 수습하는 일을 했다. 그가 하수구에서 갈퀴로 끌어올린 시신만 해도 100여구가 족히 넘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응이 해방을 맞고 9월 돌아오자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 70명은 모두 마을 어귀에 나가 환대했다. 하지만 귀환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고 한 달 뒤 화병이 심해져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해 어머니도 콜레라 병을 얻어 아버지를 뒤따랐다.

이 응은 일본군에 끌려가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게 됐지만 귀국 후에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이장·대구면장을 지내는 등 면사무소에서 30여 년간 일했다. 5남 2녀를 둔 그는 30년 전 광주시 서구 염주동으로 이사해 살았다. 이 응은 지난 1993년 (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사를 받아 군 복무 당시 부상을 인정받아 1급 회원으로 등록됐다.

이 응은 “매년 8월만 오면 그날의 끔찍했던 잔상이 떠오른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기 전까지는 1945년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희생된 자국민 30만명의 넋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말도 덧붙였다.

들을 기리는 길”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맞서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재)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일본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978년 협회의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전체 피해자 9362명 가운데 호남지역은 758명이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20여 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피폭자가 많았던 이유는 태평양 전쟁 군사거점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한국인 강제징용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웠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는 재외 피폭자는 의료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28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3000여 명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 치료비 전에 지급을 요구하며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3심) 판결은 다음달 8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는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호국 영령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해질 19:25
달출 03:30 달짐 17:37

오늘은 '말복'

오전에 비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21/29	보성	비온뒤	22/27
목포	비온뒤	22/28	순천	비온뒤	23/29
여수	비온뒤	23/27	영광	비온뒤	22/29
나주	비온뒤	21/29	진도	비온뒤	23/29
완도	비온뒤	24/30	전주	비온뒤	23/28
구례	비온뒤	21/29	군산	비온뒤	21/29
강진	비온뒤	23/29	남원	비온뒤	21/28
해남	비온뒤	23/29	홍산도	비온뒤	20/26
장성	비온뒤	21/28			

◇바다 날씨

시해	면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1.0~2.5	북서~북	1.0~2.0
남해	남부	북~북동	2.0~3.0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남~남서	1.5~3.0	남서~서	1.0~2.5
남해	서부	남~남서	2.0~4.0	남서~서	2.0~3.0
남해	서부	남~남서	2.0~4.0	남서~서	2.0~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36	06:02
여수 <td>12:36</td> <td>18:03</td>	12:36	18:03
	07:41	01:43
	20:13	13:39

◇주간 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	☁	☁	☁	☁	☁	☁
23/31	22/32	23/32	22/31	23/31	23/30	24/29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10
빨래	20

5·18단체, 김홍두 고양시의원 사퇴 촉구

“폭동자 발언, 5·18 폄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민주항쟁을 왜곡·폄훼한 경기도 고양시 의회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는 11일 고양시청을 찾아 최성 고양시장과 이하우 시의회 부의장, 당사자인 김홍두 시의원을 면담했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소속 김홍두 의원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동료 의원들에게 5·18 등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시의원 17명 전원을 카카오

톡 단체방에 초대해 세월호 희생자를 ‘수학여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5·18 희생자를 ‘5·18 폭동자’로 지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일보직 전입니다”, “폭동해야 대박나는 참으로(X)같은 종북세상”이라는 언급도 했다.

5·18 단체들은 “5·18 연행·구속·사망자들의 보상금은 1인당 평균 4400만원으로, 김 의원의 주장(메시지 상 6억~8억원)은 억지로 꾸며낸 거짓 luck”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월 관련단체는 이날 5·18 왜곡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

광주 대형재난 응급 대처 ‘특수구조단’ 창설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광주지역 산악과 수난사고, 대형 화재 등에 긴밀하게 대처할 119 특수구조단이 창설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위 특수구조단이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대형 재난 발생시 앞장서 인명구조와 활동과 지원에 나선다. 또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화학·수난·특수사고 구조 활동,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과 구조활동을 하게 된다.

물놀이 등 수난사고 인명구조활동과 헬기를 이용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소방헬기 활동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에도 투입된다.

11월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기존 구조구급대에 있던 항공구조구급대가 옮겨 오고 산악구조팀, 특수구조팀, 현장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재배치와 신규 등 43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선,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365일 따뜻한 금융으로
광주문화신협이 조합원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금리에 금리를 더한 문화신협 파워 예금·적금

예탁금 금리	2년 2.3% + α 1년 2.2% + α	이용고 배당금
목돈마련 정기적금 (안정적인 이자수익)	2년 2.5% + α 1년 2.4% + α	이용고 배당금

0.1%가 아쉬운 시대, CMA보다 높은 문화신협 자유입출금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1.50% + α (금액에 따라 차등 이율 적용)

■ 신규 개설시 혜택

- ☑ 온·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
- ☑ 스마트뱅크 수수료 면제
- ☑ 이용 실적에 따른 예금·대출 금리 우대
- ☑ 입출금 SMS 수수료 면제
- ☑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하면 이자가 붙어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불어나 예탁금 행복이벤트

불어나 통장 + 체크카드 + 전지금융

사은품 증정 I

자동이체 2건 이상신청 Or S뱅킹 등록 Or 신협 제휴카드발급

사은품 증정 I + II

혜택

1. 수수료 면제
납부자대출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단, 월 기준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이상이면 제외)
2. 우대이율 적용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
①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신협카드 발행일과 자동이체 실적에 있는 경우
③ 신한카드, 신한계좌입출금, 신한계좌입출금 실적에 있는 경우
※ ①과 ②는 중복하여 추가우대이율을 적용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분류방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